

interview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수행·전법으로 정진하는 종단될 것”

23일 신년기자회견...4대 비전·20대 핵심사업 구제안 내놔

조계종이 올해 화두로 '수행종 흥회복과 전법'을 제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사진)은 1월 23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수행과 전법'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를 위해 종풍 진작과 수행승가 진흥, 대중 원용살림 회복, 전법과 복지 진흥, 사회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수행종가 등을 4대 비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참로 문제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관람료를 받으려는 사찰의 입장도 다르다. 문화재관람료 때문에 비리가 생긴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국립공원입장료 폐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져 발생한 문제입니다. 또한 총무원은 끌려가거나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전 환경부 장관, 문화재청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과 함께 공동실무회의를 구성을 합의했으니, 잘 풀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선거가 있는 올해 종교계의 선거참여 정도가 관심을 끄니다. 대선에 대한 조계종 차원의 입장은. “대통령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종교를 비롯하여 학연, 지연에 얽매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후보 중 가장 훌륭한 이가 뽑히기를 바랍니다.”

▲호법가능 강화를 위해 종단차원에서 강구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종단상황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다보면 많은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올해 감사·호법 기능을 강화해 자정기능을 향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종헌종법을 위반하는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히 의법 조치할 것입니다.”

▲불교계 내부에서도 문화재관



비탈 뿐이지요. 차기 대통령에게 바랄 것이 있다면, 내재돼 있는 종교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불교도연맹의 방북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취임 직후 방북계획이 잡혀 있

었으나, 방북 직전 을지훈련을 한 다음 오지 말라고 해서 취소됐습니다. 지난해 가을 신계사 대웅전 낙상 때 북측 불교대표로부터 방북요청을 받았으나 일정상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선 3월에 있을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해 달고 초청해 놓았습니다.”

한편 조계종은 올해 △포살·자자 정례회 △종장회의 설치 △불암사 결사 60주년 사업 △소임의 무화 제도 추진 △노후복지 제도화 △종단 자정기능 향상 △어린이·청소년 포교 진흥 △신도시 거점 전법도량 건립 추진 △간화선 대중화사업 △한국전통사상서영역사업 △전법회관 및 문화관 건립 등 20개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특히 선·교·육을 대표하는 종장들이 참여하는 종장회의 설치, 불암사 결사를 잇는 종풍 진작, 선원 안거뿐만 아니라 분림사, 종무, 포교, 복지, 기도 분야의 수행이력 인정, 어린이·청소년 포교 집중 지원, 신도시 포교를 위한 기금 조성 등이 올해 새롭게 시행돼 수행과 전법 종단으로서의 위상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종교간 이해·존중이 중요”

정산 스님, 이명박 前 서울시장에 ‘조언’

“다종교사회의 국민들을 끌어안아야 하는 위장자 입장에서 어느 종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다”

전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1월 20일 서울 관문사에서 이명박 前 서울시장의 예방을 받고 이같이 조언했다(사진). 스님은 “지난해 6월 ‘사찰이 무너져라’ 기도한 부산 개신교 청년집회와 관련해 1월 23일 부산에서 범불교수호대회가 열린다”면서 “종교간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면 화합되고 참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前 시장은 “부산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개신교 신도들은 물론 온 국민에게 창피하고 송구한 일”이라며 “개신교계 목사 대부분도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소수의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산 스님은 “1월 16일 상월원각대조사 탄신일에 음성꽃동네 오묘진 신부가 구인사를 찾아 불교의 예를 따라 제를 지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그나마 불교와 천주교간에는 교류가 활발한데 비해 개신교 측과 왕래가 뜸한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전태종 재무부장 조재 스님, 사회부장 무원 스님, 총무국장 월도 스님 등이 배석했다.

김원우 기자

총지종 새 총리원장 원승 종사 인준

불교 총지종은 1월 25일 서울 역삼동 총리원에서 중앙총의회를 개최하고 제 15대 총리원장으로 중앙총의회 의장 원승(元勝) 종사(사진)를 인준했다.



원승 종사는 1990년 덕화사 주교와 지총급 법사 품수를 시작으로 91년 향마급 대법사, 96년 청정지 정사, 2001년 말인지 대정사, 2006년 4월 출세간위 종사를 품수 받았다.

6대, 7대 중앙총의회 의원, 사강위원 총지종 유지재단 감사와 이사, 서울 경인 교구장,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이사, 전담건설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부산 삼립사 주교에 재임하고 있다.

한편 불교총지종 제15대 총리원장 원승 종사 취임식은 1월 29일 오후 3시 총지사 서원당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총지종은 오후 2시 총지사 원정대장사기념관에서 제100주년 종조탄신기념 ‘종조탄신대제’를 봉행했다.

김원우 기자

제주 관음사 주지 직대 진명 스님 임명

제주 관음사가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어 못함에 따라 직무 대행 체제를 연장하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23일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직무대행에 前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진명 스님을 임명했다.

관음사는 지난 9월 실시한 산중총회에서 용주 스님을 주지후보로 선출했으나,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중총회법을 위반했다며 당선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계종 총무원회는 지난 10월 용주 스님을 주지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관음사는 11월 다시 산중총회를 열어 주지를 선출하려 했으나, 23교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일부 후보가 후보등록을 거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중앙선거위가 재선거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관음사는 주지 선출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주지 선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치러진 제14대 중앙총회의원선거에서도 직선직 중앙총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국립공원·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협의회 구성

조계종·문화부·환경부 등 10인 위원 참여...매월 정기회의

조계종과 정부가 국립공원과 사찰문화재 관리 등 전반에 걸쳐 협의할 공동기구로 구성했다.

조계종과 문화관광부, 환경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첫 실무회의를 열고 ‘국립공원과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협의회(이하 제도개선협)’를 구성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 등 종단대표 3명과 환경부, 문화관광부 국·과장 등 정부측 7명이 제도개선협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도개선협은 매월 정기회의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조계종이 국·공립공원 해제와 문화재 관리·보수 예산 증액 요구

등 핵심현안 5가지를 의제로 제출키로 내부 방침을 정함에 따라 10월 31일 열리는 두 번째 회의 때부터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봉영 기자

대표이사에 정산 스님

전태종 복지재단

전태종 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전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선출됐다.

전태종 복지재단은 1월 22일 이사회를 열고 복지재단 상임이사 무원 스님, 신임이사 도정 스님 등을 임명했다. 이사회는 올해 3대 중점 사업으로 △전법복지 복지시스템 구축 △복지사업강화 △천재지변 피해 특별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법인을 비롯 7개 산하시설의 올해 예산을 58억여원으로 확정했다. 김원우 기자

“꽃길 걸으며 마음 닦아요”

조계종 중앙신도회 전국 12곳서 ‘걷기선’ 수행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제주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꽃길과 함께 하는 걷기선(禪) 수행’을 실시한다.

꽃길과 함께하는 걷기선(禪) 수행은 불교수행법의 대중화와 지역 불교조직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3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성환’·‘화합’·‘정진’을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는 △3월 18일 제주 카멜리아 힐 △24일 부산 UN모지 △25일 진해 근항제 장소 △31일 광주 무각사,

△4월 1일 울산 태화공원 △7일 대구 두류공원 △8일 전주 수목원 △14일 대전 한밭수목원 △15일 수원 화성 △21일 강릉 △22일 서울 하늘공원 △29일 인천직지 평화누리에서 열린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신도회관 건립과 관련, 설계사무소를 선정해 기본 설계안을 심의중에 있으며 2007년 10월까지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711.95평 규모로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구족계·식차마나니계 4월 2·9일 직지사서

조계종 총무원과 고시위원회는 올해 전반기 치러질 수계산림과 각급 고시를 공고했다.

조계종 총무원회는 김천 직지사서 4월 2-8일 제27회 구족계 수계

산림, 4월 9-11일 제15회 식차마나니계 수계산림을 연이어 봉행한다. 또 고시위원회(위원장 법산)는 3월 23일과 27일 각각 4급, 5급 승가고시를 김천 직지사와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실시한다.

구족계는 예비스님인 사미·식차마나니가 정식스님이 되기 위해 거치는 수계과정이다. 박봉영 기자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스님께서 2006년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출발하여 하루하루의 고행정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3월 10일 임진각에서 회향식이 봉행됩니다.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 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숙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 kipoo255@yahoo.co.kr / db4676@chol.co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1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정진기간 : 2006년11월30일부터 ~ 2007년3월10일까지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회향장소 : 임진각
후원 : 태광컴퓨터(주)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유클스주식회사 '한'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출발시간 - 아침 08:00

제9주 1월 25일 - 1월 31일 [158km]

Table with 4 columns: Day, Departure, Destination, Distance. Rows include 1월 25일(목) 광양읍, 1월 26일(금) 별량, 1월 27일(토) 열가재, 1월 28일(일) 보성읍, 1월 29일(월) 장흥읍, 1월 30일(화) 강진읍, 1월 31일(수) 학산.

제10주 2월 1일 - 2월 7일 [151km]

Table with 4 columns: Day, Departure, Destination, Distance. Rows include 2월 1일(목) 목포시, 2월 2일(금) 무안, 2월 3일(토) 신광, 2월 4일(일) 영광읍, 2월 5일(월) 영광, 2월 6일(화) 고창, 2월 7일(수) 부안.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차씩 연속해서 회향 일정까지 게재해 드립니다.